

廣州李氏會報



遁村先祖 庭訓

둔촌선조 정훈

讀書可以悅親心 독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
 勉爾孜孜惜寸陰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老矣無能徒自悔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만 하게 되느니
 頭邊歲月苦駸駸 머리맡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쏠살같이 흐르도다.

遺子滿籩金 자손에게 금을 광주리로 주다해도
 不如教一經 경서 한권 가르치는 것만 못하느니라
 此言雖淡薄 이 말은 비록 쉬운 말이나
 爲爾告丁寧 너희들을 위해서 간곡히 일러둔다.

“退任辭”

大宗會 有司職을 떠나며-



時間에 대해 感覺的인 長短이나 지속도를 느끼는 것은 個個人이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전혀 다르다.
 “십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과 “一刻이 如三秋”란 表現이 공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누구나 전혀 다른 兩極의 느낌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2011年 10월에 동년 4월에 출범한 前 宗會 집행부가 뜻밖에 六個月만에 도중하차를 하는 狀況이 발생하여 그 당시 제가 속한 지파도유사로 근무하다 準備되지도 않았고 宗會를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도유사 직을 맡게 된 것을 始作으로 一次 連任 포함 五年半의 任期를 마치고 이 退任辭를 쓰고 있으니 이 五年半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歲月이란 感이 듭니다.

이 기간이 “十年이 하루 같다”나 “一刻이 如三秋”같다는 表現 어느 것도 맞지 않고 그냥 五年半이란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돌이켜 봐도 宗人數가 전국적으로 18만 여명으로 推算되고 10個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며 明白한 기록상으로도 700여년의 歷史가 찬란한 명문가의 都有司(總 會長에 해당되는 직분)가 되기엔 景運도 인품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처음부터 매사에 最善을 다하겠다는 一念으로 宗務를 맡게 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힌

- 1) 宗人間 和合하고 宗인이 主人이 되는 宗會
- 2) 公正하고 透明한 運營
- 3) 근검절약하고 착실한 宗財管理 등

몇 가지 方針을 밝힌바 있는데 그때 그 初心이 퇴색하거나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지금도 反省, 三省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一. 집행부 구성

宗인들은 많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유사 직을 맡아 첫 집행부 구성부터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구성 원칙을 꼭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중용하는 방침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러한 구성에 처음부터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으며 비판도 받았습니다.

二. 初期 정리 정돈기

앞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해체된 후라 이래저래 정리할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宗人間의 갈등과 시비가 생겼고 지금 生覺해도 없어야 할 訟事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宗인을 징계하는 不祥事도 있어 그런 過程에 상당기간 後유증을 격기도 했습니다.

三. 執行部 유사들의 빈번한 交替

出帆이후 그런대로 조심스럽게 지냈으나 連任期에 들면서 집행부내 네 분의 有司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自意로 그만두는 분이 있는가 하면 自意半 他意半으로 그만두는 분, 他意로 辭任하신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같이 출범한 집행부 회원이 같이 끝까지 가지 못한 宗會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업무 動力이 떨어지고 업무 效率도 저하되어 객관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로 낙인 된 점 自認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정도의 內部的 어려움은 賢明하게 넘길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責任者의 不德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四. 宗會 주변 怪 團體 出現

禍不單行(어려움이나 화는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옛 말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사람 앉되는 집행부 내에서 和合하지 못한 사이 지금까지 前例가 없던 怪 團體가 출현하여 文書로 宗會 집행부를 비난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난에 그치지 않고 터무니없이 人身攻擊과 非難 등 流言蜚語가 난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는 단체 이름이라 몇 차례 그 실체를 확인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정체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一部 불만자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말았지만 그 原因을 굳이 따지면 禍不單行 그대로 집행부가 갈등을 느낄 때 생기는 것

입니다. 향후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증 하나입니다.

五. 未來를 向한 새로운 시도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宗會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試圖로 청장년 육성운동이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되어 舉族的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人口가 감소하고 청장년의 생활이 바쁘고 어려운 실정 그 실상 그대로 우리 宗會와 청장년회에 파급되어 왔습니다. 타 문종과 달리 어려운 중에도 우리 宗會 청장년회는 격년제로 全國 광주이씨 한마음 잔치를 벌써 20여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문종의 자랑입니다. 뜻하는 바와 달리 청장년층의 숫자가 줄면서 긴 미래를 보면 우리 既成宗人들이 젊은 宗인들의 미래에 관심과 성원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宗會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전 宗인이 합심해서 미래의 주인공에게 격려와 사랑을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宗인 여러분 이 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六. 結論

不足한 저에게 宗인 모두가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신 情, 平生토록 고이 간직할 것이며, 恒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임 초기에 제가 言及한바 있는 論語의 한 구절

君子 和而不同(군자는 어떤 일에 대하여 틀리고 다름이 있어도 근본은 화합하고)

小人 同而不和(소인은 이해관계만 맞으면 항상 같이 하지만 근본은 화합하지 못한다)는 말로 끝맺겠습니다.

宗人 여러분, 틀린 의견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너무 다투어 宗인간에 골이 생기는 일은 삼가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것은 골이 생겼다고 姓을 바꿀 수 없는 限界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선조님이 가르치신 百代至親 廣州李氏 문종이 永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대종회 대의원정기총회 성료

- 신임 대종회 도유사에 광원군파 옥재 도유사 선출 -

대종회는 3월31일(금요일)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도 대의원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날은 차기 광주이씨 대종회 집행부를 이끌 새 도유사를 선출하는 날로 많은 종원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 되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모이기 시작한 임원 및 대의원 등 150여명의 종원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가운데 총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총 106명 중 99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와 함께 식순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 후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6년도 결산보고를 상정하였으나 대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관해서만 요약보고 되었으며, 두 번째 상정안인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유인물로 가람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은 기타 부의안건 상정에 앞서 재진 도유사는 2017년도는 대종회 집행부가 변경되는 해로 기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음을 부연 설명하고,

이어 하남시 덕풍동 산24번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관련 집행부 위임의 건을 상정하고 상세히 설명하여 이의 처리를 집행부에 위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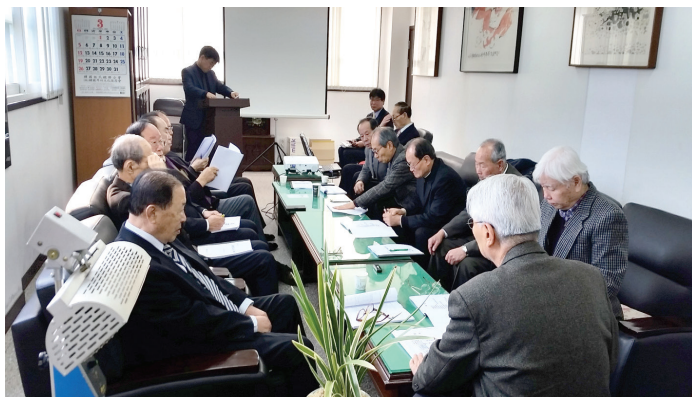
끝으로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 위원장으로 경험이 풍부하신 광릉부원군파 종선 도유사를 선임하고 도유사 선출을 위한 권한을 위임 하였으며, 이날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친 세분(경재 전 방송통신 위원장, 종식 전 광천부원군 도유

사, 옥재 광원군파 도유사)을 대상으로 출마 소견을 들은 후 경선을 한 결과 옥재 광원군파 도유사께서 차기 광주이씨 대종회를 이끌어갈 도유사로 선출되었다.

이어서 감사와 대종회 임원 중 부도유사를 추천받아 선출하였으며 감사 2인중 근재 감사는 유임되었고 공석중인 1인은 문경공파의 병채 대의원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2017년도 대종회 자문위원회 개최



대종회 회의실에서 각 지파도유사가 전원 참여한 가운데 2017년도 대종회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재진 도유사는 오늘 회의는 3월말 대의원 정기총회에 앞서 각 지파 도유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회의이며, 특히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회의임을 유념하시어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평년과 같은 범위에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종철 장재유사가 업무경과보고와 함께 2016년도 결산내역,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끝으로 신임 도유사 선출방법에 관한 건은 경선을 준비하여 후보자를 사전에 등록을 받고, 감사와 대종회부도유사는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지파의 사전 추천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원만하게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회의를 모두 마쳤다.

대종회(도유사 재진)에서는 지난 3월7일 5층 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차 대종회 임원회의 개최

대종회에서는 3월10일(금요일) 오전10시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대종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종태 종무유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총 31명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소개, 국민의례, 도유사 인사, 의안상정,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재진 도유사는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오늘 임원회의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진행하는 회의가 됩니다. 보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경과보고와 2016년도 결산내역을 일괄 상정하여 몇몇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 후 시정해 나가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다음은 2차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재진 도유사는 금년도 예산편성 시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마무리하지 못할 일을 차기집행부에 떠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면, 몇몇 종회에서 요청한 현양사업비 지원 건 등은 다음집행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

겠다고 말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하였다.



재경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재경화수회(회장 재진)는 지난 3월15일(수요일) 오후5시 대종회 5층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6시 정기총회시 상정할 2016년도 결산내역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6시 지하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진회장은 이달 말일을 기준으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고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온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 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었다”며 “그동안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전하고 회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정을 잊지 않고 꼭 간직하겠다고 인사

를 마쳤다.

이어서 총교 화수회총무의 경과보고와 종철 재무담당이 2016년도 결산내역,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고 본안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다음은 신입회원 소개와 인사, 그리고 재석 산악회장이 3월26일(일요일)에 있을 시산제 행사에 대한 안내와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지난 3·1절 날 애국지사 정암 이증훈 선생 추모식에 참석해 준 회원 여러분에 대한 천희 심운과공종회를

도유사께서 감사인사 있었다.

끝으로 새로운 집행부와 임원 선출 건은 대종회 신 집행부와 연계하여 4월중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이날 정기총회를 모두 마쳤다.

- 화수회 총무 총교 -



총회공 중회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

총회공 중회(도유사 명환)는 3월27일(월요일) 대종회 지하회의실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교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회의는 대상인원 60명 중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임원 및 대의원 소개, 성원보고, 국민의례, 도유사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부의안건 상정,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명환도유사는 “봄이지만 아직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총회공 선조님의 “총회 정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우리 후손들은 실천과 구현에 노력하자고 당부하였으며, 또한 금년은 총회공 탄신 622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8월25일(음 7월4일) 탄신일을 맞이하여 금년부터 총회공 할아버지의 생신제를 봉행기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경과보고와 함께 2016년도 결산내역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보고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현재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총회공 묘역을 앞으로 시·도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총회공종회 사무실을 별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건은 더 검토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총회를 모두 마쳤다.

- 총회공 중회 총무 총교 -

관찰사공 중회 2017년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신임 도유사에 선래도유사 선출 -

관찰사공 중회(도유사 종섭)는 지난 3월30일(목) 오전11시 동대문구 휘경동 광이회관 회의실에서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대의원 30명중 29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에 이어 개회선언, 국민의례, 업무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상정된 2016년도 결산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다음은 앞으로 관찰사공 중회를 이끌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안건이 상정된 자리에서

이제까지 중회를 맡아 훌륭히 이끌어 오신 종섭 도유사께서는 “그동안 임원님들과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어 소임을 다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우리 중회가 화합하고 돈독하는 분위기 속에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이어서 현 집행부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집행부 선출에서 앞으로 새롭게 관찰사공 중회를 이끌 신임 도유사에 선래 현 좌통례공파 도유사가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참판공파 용식현종, 그리고 좌통례공파 성훈 현종(유임)이 총무유사는 좌통례공파 호순 총무가 선임 되어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함으로써 중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임 선래 도유사는 수락인사에서 “3년 동안 중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원로분과 양 중회(참판공파, 좌통례공파)도유사 및 임원들과 긴밀히 상의하여 원만하게 중회를 운영할 것을 약속 한다”고 말하고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 관찰사공 중회 기 -



領議政 諡 文翼 漢陰先生 墓誌文(國譯) [1]

영의정 시 문익 한음(휘 덕형)선생 묘지문(국역)



만역(萬曆:明宗의 년호) 癸丑年(一六一三) 十月에 명부(明甫)가 용진(龍津)의 강가에서 一生을 마쳤다. 부음(訃音)을 들으신 임금께서는 몹시 애도하시고 그 복관(復官)을 命했다. 그리고 大夫와 현사(賢士) 및 사인노유(士人老幼) 할 것 없이 심지어 이서군민(吏胥軍民) 상인(商人)들까지도 나라 일을 걱정하며 망연자실(茫然自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마다 재물(財物)을 염출하여 조의(吊意)를 표하느라 문전(門前)에 줄을 이었다.

이때 나는 明甫와 같은 죄목(罪目)으로 몰려나 노원(蘆原:경기도 양주에 속했던 지명)에 있으면서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 대염(大殮)을 할 때에야 도착하니 상제가 슬픔에 복받쳐 울부짖으며 맞이 하였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근년(近年)에 울곡(栗谷)이 세상을 버렸을 때엔 삼학(三學:성균관의 별칭)의 생도(生徒)와 금군(禁軍)들이 사제(私第)로 몰려와 조곡(吊哭)을 했고 서애(西厓)가 별세를 했을 적엔 시정(市井)의 백성들이 역시 사제(私第)에 몰려 슬피 울었습니다. 지금 공계선 이름이 사패(司敗)에 걸려 있고 삼시(司諫院, 司憲府, 弘文館)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처형할 것을 청원하는 처지인데 별세하는 날을 당해서는 이와 같이 모두들 슬퍼하니, 대체 무엇을 베풀었기에 上下(임금과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대우를 받으니까?」하여 나는 말하기를, 「성인(聖人)의 말씀에 산 사람에게엔 강제로 지조(志操)를 굽히게 할 수 없고 죽은 사람에게엔 강제로 그 명예(名譽)를 빼앗을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런 일을 두고 한 말씀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가 벼슬길에 오른

지 三四年 동안 세운 공로와 벼슬 은덕이 널리 마치 해와 달이 환하게 中天에 매인 것과 같아 어리석은 사람이나 슬기로운 사람이 모두 그 청명(淸明)함을 아는 터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다시 볼 수가 없게 되니, 탄식하고 슬퍼함은 사람의 상정(常情)이 아니겠는가? 일찍이 일본(日本)의 사신(使臣)을 접대(接待)했을 때엔 그들이 그의 덕망(德望) 앞에 굴복을 하였고 명진(明陣)에 종군(從軍)을 하였을 적엔 그들도 그의 재질(材質)을 숭배하였다. 우리나라 사신(使臣)이 경사(京師)라든가 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의 안부(安否)를 물었고 그의 출처(出處:진퇴를 말함)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쇠(盛衰)를 예단(豫斷)하곤 하였으니, 지금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다면 몹시 슬퍼하고 애석해 하리라. 그러니 어찌 다만 한 나라 뿐이겠는가? 앞으로 해와 달이 비치고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나 슬퍼하지 않는 곳이 없으리라. 그 덕망(德望)의 미친 바가 이와 같이 멀거늘 한 나라 사람으로 같은 時代에 태어나서 같은 조정(朝廷)에서 벼슬을 하고서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덩달아 시기(猜忌)를 하고 시기를 하다못해 필시 죽이려고까지 한대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성명(聖明:임금을 이르는 말)께서 위에 계시니, 日月의 밝음처럼 곁에서 도와 비추고 귀신(鬼神:공명정대한 陽陰을 말함)의 덕화(德化)같이 널리 명시(明示)했음을 우지(愚智)를 막론(莫論)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감히 하늘을 배반하고 밝음을 가로막아 제멋대로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 과연 그들의 本心이 참으로 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모를 일이다.」하니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면적(界面)적(界)여기더라.

수일(數日)이 지난 뒤에 그의 아들 고(孤:無父曰孤) 여벽(如壁)이 슬픔에 지친 모습에다 상복 차림으로 와서 울며 지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버님께서 평소 자식에게 말씀하시기를 노부(老夫:공을 일컫는 말)의 心事를 친구인 이모(李某:白沙를 가르키는 말)는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불행(不幸)하게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살펴보건대 아버님과 같이 깊이 교류(交游)하시고 글을 주실 만한 분은 오직 大夫만이 계실 뿐이라 감히 유당(幽堂:墓所)에 묻을 글을 부탁드립니다.」하여 나는 말하기를, 「옛날 사마후(司馬侯:春秋晉 叔齊의 字)가 죽으니, 숙향(叔向:春秋普 羊舌肸의 字)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 대의 아버지가 죽고 보니, 나는 서로 도우며 임금을 섬길 짝이 없어졌다. 그대의 아버지가 시작(始作)을 하면 나는 끝을 맺고 하여 진(晉)나라에 힘이 되었다. 지금 그대의 아버지가 죽은 마당에 나라고 슬프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다. 하물며 나는 그대의 아버지와 나이로 치면 일반경(一飯頃) 먼저의 차이로 덕(德)으로 말하면 항상 세 등급은 뒤졌지만 太平한 세월엔 안서(鴈序)처럼 나란히 문창(文

昌:홍문관을 말함)을 나아갔고 국가(國家)의 이변(異變:임진왜란)을 당해서는 서로 교대(交代)해 가며 중병(中兵:병조판서를 말함)을 맡았었다. 늙도록 반식(伴食:배음과 같은말)을 하며 형제(兄弟)처럼 허물없이 끝끝내 서로 더불어 끝을 맺었다. 평생의 환적(宦跡)을 살펴보건대 대략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으니, 나를 알아주는 이는 그대의 아버지였고 그대의 아버지를 경모(景慕)했던 사람은 나였다. 내 젊어서는 마중지봉(麻中之蓬) 덕(德)을 입었고 지금은 또 기미승(驥尾蠅)에 붙따르는 기망(期望)이었다. 내 감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록을 하지 않겠는가?」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며 서술하기를 「明甫의 諱는 덕형(德馨)이요. 한음(漢陰)은 그의 호(號)이다. 李姓은 광주(廣州)에서 계출(系出)한 망족(望族)인데 고려말기(高麗末期)의 공민왕(恭愍王)때를 당하여 항직(抗直:뜻을 굽히지 않고 정직함)으로 평판이 높았다. 신돈(辛旽)이 죽이려고 하자 아버지를 업고 도망해 숨어서 세상에 大名을 떨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휘(諱)를 집(集)이라하고 號를 둔촌(遁村)이라 한 분이다. 그후 二世~三世를 전해서 諱를 인손·극균(仁孫·克均)이라 하는 父子분이 있었는데 두 분이 잇달아 정승(政丞)을 지내니, 李氏들이 이 때문에 더욱 대성(大盛)을 하였다. 또 二世를 지나서 諱 수충(守忠)에 이르고 守忠께서 諱 진경(振慶)을 낳으시고 振慶께서 諱 민성(民聖)을 낳으시니, 현령(懸令)인 유예선(柳禮善)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 하시어 가정(嘉靖:明世宗의 년호) 辛酉年(서기 一五六一年)에 明甫를 낳으셨다.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뛰어나 심의(沈毅:침착하고 굳센)하고 순근(淳謹:순박하고 조심성이 있음)하여 함부로 장난을 아니했다. 十一歲에 文章을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十二歲에 대성(大成)을 했으며 十四歲때 봉래양사언(蓬萊楊士彦)이 방문(訪問)했을 때엔 數十篇의 詩를 창화(唱和)하니 그대는 나의 스승이다.」라고까지 했으며 二十歲에 及第해서 槐院(승문원의 이칭)에 선입(選入)되었다.

선조(宣祖)께서 훈의강목(訓義綱目:書名)을 강독(講讀)하려고 재신(才臣)의 선발(選拔)을 命하시고 특별히 내장(內藏:궁중에 있는 官庫)의 어질(御帙)을 내리시어 강독(講讀)케 해서 고문(顧問)에 대비코자 하였는데 울곡(栗谷)이 다섯 사람을 천거했고 그 가운데 나와 明甫가 오르게 되니 세상이 영예(榮譽)롭게 여겼다. 壬午年(서기 一五八二年)에 조사(詔使:中國의 사신) 황홍헌(黃洪憲)과 왕경민(王敬民)이 한강(漢江)에 노닐면서 듣건대 朝鮮에 李某란 사람이 있다고 하니, 한 차례 만나보기를 원한다.」하였으나 明甫는 예의상(禮義上) 사사로이 접견(接見)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양을 하니, 王公은 한 首의 詩를 기증(寄贈)하고 짚막한 사연을 곁들여 보냈는데 대략 이르기를, 「그대의 풍도(風度:풍채)와 기상(氣像)이 보통의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들었으나 아직 직접 상대해 보지 못

하였소. 다만 이 글을 보내면서 神交(정신적으로 사귀)를 맺고자 하오」하였다. 전조(前朝)의 사례(事例)에 옥당(玉堂:홍문관 이칭)의 벼슬아치로서 독서당(讀書堂)의 사가(賜暇)에 참여(參與)가 되는 것을 가지고 當時의 제일가는 청선(淸選:고상하고 귀한 벼슬)이라 여기고 등영(登瀛)¹⁷⁾ 비유하기 까지 했었는데 그때에 宣祖께서는 이미 망목(綱目)을 명사(命賜)하시고 계속(繼續) 玉堂에서의 독서당(讀書堂)의 선발(選拔)을 재촉하셨고 울곡(栗谷)께서는 마침 문형(文衡:大提學)을 맡고서 이 일을 주장(主張)하고 있었으나 癸未年(서기 一五八三年)의 사건(事件)¹⁸⁾ 이후 조정(朝廷)의 공론(公論)이 들로 나뉘어 가부(可否)의 결정(決定)이 나지 않았었다.

당시 明甫는 후진(後進)으로서 명성(名聲)이 자꾸만 높아갔고 나 역시 조그만한 들림이 있어 둘이 함께 응선(應選)될 가망(可望)이 있었는데 어떤 재상(宰相)이 밤을 이용하여 울곡(栗谷)을 방문(訪問) 해서 남몰래 이르기를, 「두 사람이 과연 인망(人望)은 있으나 그 의향(意向)을 모르겠으니, 경솔하게 천거(薦舉)를 해서 시사(時事)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하니 栗谷께서는 「그 두 사람은 이제 한창 성문(聲聞)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폐현(蔽賢)¹⁹⁾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천거(薦舉)하는 것은 인재(人才)를 얻는 것을 귀히 여길 뿐인데 어찌 의향(意向)을 논(論)하겠습니까. 하여 밤중이 넘도록 다투다가 할 수 없이 돌아갔었다 한다.



이듬해 봄 임금께서 서종대(瑞葱臺)²⁰⁾에 거동을 하셨을 때에 明甫는 응제(應製)에 수위(首位)를 차지했으며 이로부터 문예(文藝)를 겨룰 때마다 번번이 수석(首席)의 자리를 차지하니, 감히 선봉(先鋒)을 겨룰 사람이 없었다. 또 정시(庭試)의 승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입각(入覲)²¹⁾된지 오래인 사람으로 같은 선발(選拔)에 경쟁을 할 자가 먼저 정원(政院)에 묻기를, 「내일의 정시(庭試)에도 李某가 틀림없이 응시(應試)할 것인데 또 首席의 자리를 차지할 게 아니겠는가?」하였다.

明甫는 이 소문을 듣고 病을 핑계 삼아 應試를 포기했다. 이에 대하여 논자(論者)들은 「싸울 때마다 승리(勝利)하고 공격할 때마다 빼앗는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가 약한 줄을 알면서도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라고 평(評)하였다. 이어 부수찬(副修撰)²²⁾에 올랐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부교리(副校理)· 이조좌랑(吏曹佐郎)을 역임(歷任)했으며 戊子年(서기 一五八八年) 日本의 사신(使臣) 현소(玄蘇)와 평의지(平義智)가 왔을 때엔 明甫로 하여금 그들을 영빈(迎賓)케 하면서 특별히 이조정랑(吏曹正郎)을 제수하였다. 두 日本 使臣이 그의 의표(儀表)를 바라보자마자 움찔하며 경의(敬意)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보작(步爵:술잔을 돌림)을 하는 자리에서 보빙(報聘)²³⁾을 역청(力請)했으므로 明甫는 日本이 근세(近歲)에 들어 우리 변방(邊方)을 침노하고 백성들을 사로 잡아간 것을 들어 그들의

신의(信義)없음을 책문(責問)했다. 日本은 이 말을 듣고 즉시 불들려 간 변민(邊民) 백여명을 돌려보내니, 선조(宣祖)께서는 몹시 가상(嘉尙)히 여기시어 직제학(直提學)을 초배(超拜)하시고 은대(銀帶)를 하사(下賜)하셨다. 庚寅年(서기 一五九〇年)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올랐고 이어서 우승지(右承旨)· 대사간(大司諫)· 부제학(副提學)· 대사성(大司成)·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역임(歷任)했으며 이듬해인 辛卯年에 예조참판(禮曹參判)에 초배(超拜)되어 대제학(大提學)을 겸임(兼任)하니, 당시(當時)의 나이 三一歲였다.

우리나라 관직(官職)중에 문형(文衡:大提學)을 가지고 몹시 중히 여겼으므로 아무리 큰 재질(才質)과 훌륭한 학자(學者)일지라도 이력(履歷)이 많고 품계(品階)가 높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기가 어려웠다. 明甫는 명실(名實)이 다 같이 훌륭하여 조정(朝廷)의 노사(老師)들마저도 팔짱을 낀 채 우이(牛耳)²⁴⁾잡기를 사양하고 감히 손을 내미는 자가 없었고 임금께서 특별히 가선(嘉善)²⁵⁾의 자리로 올리신 것도 먼저 간주(看倣)하신 까닭이라 하겠다. 朝

廷에서 회천(會薦:추천을 타함 함)을 할 때에는 모두가 추거(推舉)를 해서 별로 이의(異意)가 없었는데 明甫에게 오히려 권점(圈點)²⁶⁾이 하나가 적은지라 좌중(座中)이 깜짝 놀라며 「어찌된 일인가?」 하니 동원(東園) 김상공 귀영(金相公 貴榮)이 웃으면서 「노부(老夫)의 소행(所行)이오」하여 모든 사람이 더욱 실색(失色)을 하니, 金公이 천천히 이르기를, 「나도 젊고 품계(品階)도 낮은 사람이 많은 노성(老成)들보다 선행(先行)을 해서야 되겠는가? 재능(才能)도 높아지고 덕량(德量)도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어땠겠는가?」하여 모두들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나 明甫는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깊이 새겨 따르니, 당시(當時)의 사론(士論)이 다 옳다 하고 아울러 칭찬(稱讚)하였다.

壬辰年(서기 一五九二年)에 日本이 대군(大軍)을 몰고 침입(侵入)을 해서 「이모(李某)를 청견(請見)하고 강화(講和)를 하겠다.」선언(宣言)을 하니 선조(宣祖)께서는 군신(群臣)을 모아 의논(議論)을 하였으나 조정(朝廷)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 때 나는 도승지(都承旨)로서 빈청(賓廳)에 있었는데 明甫가 문밖에서 만나기를 청(請)하여 내가 나가니, 손을 불들고 이르기를 「지금 적(賊)들이 나를 만나자고 요구(要求)하니, 내 가기를 請코자 한다. 침략행위(侵掠行爲)가 몹시 지독하니 어려움이 있다 하여 사양하면 어찌하겠는가?」하고 즉시 입대(入對)하여 가

기를 자청(自請)하고 단기(單騎)로 용인(龍仁)까지 달려가니, 적(賊)들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널리 퍼져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곧바로 되돌아 漢江에 도착(到着)하니, 대가(大駕:임금이 타는 수레)는 벌써 서행(西幸)을 하신지라 뒤쫓아서 평양(平壤)으로 달려갔다. 그동안 적(賊)들은 패강(溟江:대동강)까지 뿔박해 들어와서 또 만나기를 要請하므로 明甫는 다시 갈 것을 자청(自請)하고 단가(單騎)로 강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회견(會見)했다. 이날 많은 신하들과 여러 장수들은 그 會見하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질려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만 明甫는 賊을 만나 대의(大義:인간으로 꼭 지켜야 할 도리)를 가지고 책문(責問)을 하면서 사기(辭氣)가 더욱 준열(峻烈)하였다. 뒷날 현소(玄蘇)는 가끔 남을 대하여 칭탄(稱歎)을 하면서 「창졸간(倉卒間)에도 말하는 품이 平曰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참으로 미치지 못할 人品이었다」했다 한다.

[주석]

- 1) 금군(禁軍) : 조선조 때 금군청(禁軍廳)이나 용호영(龍虎營)에 딸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동 할 때 호위와 경비를 맡아 하는 말단 군사들.
- 2) 사패(司敗) : 춘추시대(春秋時代) 진·초(陳·楚) 두 나라에서 죄형(罪刑)을 담당(擔當)하던 관명(官名)인데 사구(司寇)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형판(刑判)에 해당된 것인데 여기서는 탄핵(彈劾)에 걸려 있다는 것을 말함
- 3) 경사(京師) : 수도(首都)를 이르는 말인데 古法典에서 中國의 首都를 말하며 明代의 北京을 이르는 말.
- 4) 마중지봉(麻中之蓬) : 蓬生麻中 不扶自直(論衡의 率性)을 인용한 말인데 훌륭한 사람과 交遊하면 절로 教化를 받는다는 뜻.
- 5) 기미승(驥尾繩) : 蒼蠅附驥尾(後漢書)에서 인용한 말인데 파리가千里馬의 꼬리에 붙어서 먼 곳까지 따라간다는 말로서 先達한 사람의 德을 입는다는 뜻.
- 6) 망족(望族) : 이름 높은 家門 人望있는 집안이라는 말.
- 7) 등영(登瀛) : 登瀛洲의 約稱인데 名譽로운 地位에 오름을 가리키는 말. 瀛洲는 三神山의 하나이므로 신선이 사는 영주에 올랐다는 뜻에서 由來 함.
- 8) 癸未年의 事件 : 서기 一五八三年 (宣祖一六)에 東人·西人の 兩黨이 싸울 때 栗谷, 李珥가 彈劾을 받은 事件 그 顛末을 記錄한 癸未播神風雨緣이 있음.
- 9) 폐현(蔽賢) : 어질고 德望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숨기어서 임금에게 아뢰지 않음 을 이르는 말(罪目에 該當되었음.)
- 10) 이진한(李鎭翰, 1779~1851) : 둔촌4간집 발생시 주역, 유교 2권이 전한다.
- 11) 입각(入覲) : 唐太宗의 貞觀年間에 太宗이 端門(宮中の 正門) 밖에 私幸을 할 때 新進士類들이 列을 지어 물러나오름을 보고 天下의 英雄들이 나의 殿中에 다 들어 왔다 하고 기뻐한 데서 由來된 말로 後世에 와서 試驗에 合格함을 이르는 말로 씀.
- 12) 부수찬(副修撰) : 홍문관의 從六品 벼슬 經籍과 文翰에 關한 일을 맡아함.
- 13) 보빙(報聘) : 相對國의 使臣이 찾아온 데 대한 答禮로서 外國을 訪問하는 일.
- 14) 우이(牛耳)를 잡음 : 옛날 나라 사이의 會盟에서 盟主가 소의 왼쪽 귀를 잡고 칼로 베어 그 피를 마시고 會盟을 했다 해서 뒷날 어떤 일에 主掌 된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함.
- 15) 가선(嘉善) : 從二品인 文武官의 品階의 하나 嘉善大夫의 다음인데 經國大典과 續大典에 宗親은 中義·正義·昭義大夫로 儀賓은 資義·順義大夫로 하였으나 大典會通에 이를 統合하여 嘉善大夫·嘉善大夫로함.
- 16) 권점(圈點) : 弘文館·藝文館·奎章閣의 官員을 뽑을 때 候補者들의 姓名을 적어 놓고 銓選官이 각기 뽑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 아래에 찍는 점. 點數가 가장 많은 사람이 뽑히게 되는 것으로 지금의 投票와 같은 것.

지파도유사글

문숙공파

世宗이 졸(卒)한 도총제 이지강(李之剛)에게 사제(賜祭)하며 내린 교서(敎書)



『신하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정성을 다하고, 임금 은 슬퍼하고 영화로운 은전(恩典)을 행하니, 이는 고금의 윤의(倫義)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경(卿)은 정량(貞亮)한 자질을 타고 났으며, 몸가짐은 단아(端雅)하고 방정(方正)하였다. 일찍이 가훈(家訓)을 받들어 학술(學術)이 정명(精明)하였으며, 두 번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문예(文藝)가 성대히 나타났다. 지혜는 넓고 요점을 잘 터득하고 있었으며, 재주가 온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이 적었다.

좋은 관계(官階)를 차례로 밟아서 바쁜 임무를 거듭 맡았다. 여러 임금을 섬겨서 힘을 썼으며 명성과 공적이 이미 많았는데, 과인(寡人)때에 와서 몸을 바치며 임금을 도와 치적(治績)을 나타냄이 더욱 지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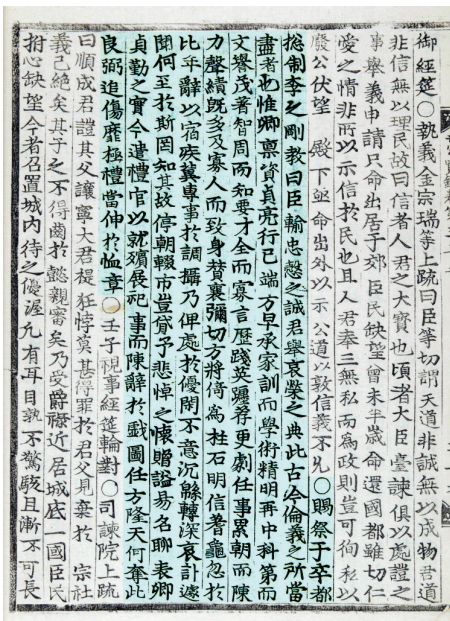
이제 주석(柱石)처럼 의지하고 시귀(蓍龜)처럼 믿으려고 하였더니, 근년에 갑자기 오래 된 병 때문에 사직(辭職)함에 오로지 조섭(調攝)하는 데 힘쓰기를 바라서 이에 한가한 곳에 처하게 하였더니, 병이 점점 더 심하게 되어 슬픈 부고(訃告)가 갑자기 들리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구나.

조회(朝會)를 정지(停止)하고 시장(市場)을 폐(閉)하나 어찌 나의 슬픈 회포(懷抱)를 면할 수 있겠는가. 시호(諡號)를 내려 그 이름을 고쳐서 경(卿)의 정근(貞勤)하였음을 표(表)한다. 지금 예관(禮官)을 보내어 빈전(殯殿)에 나아가서 제사(祭祀)를 드리고 말을 진술(陳述)한다.

아아, 직임(職任)을 바야흐로 융숭(隆崇)하게 하려 하였는데 하늘은 어찌 이 좋은 보필(輔弼)을 빼앗아 가는고? 추도(追悼)하는 슬픔이 그지없어 예(禮)로 마땅히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편다.」 <세종 9년(1427년) 9월25일>

■ 朝鮮王朝實錄에 실려 있는 文肅公 李之剛 官系
 공민왕 1년 1363년 둔촌(遁村)이집(李集)선생의 제2자로 태어남, 경기도 광주인(廣州人) 字는 중잠(仲潛), 시호(諡號)는 문숙(文肅) 포은(圃隱) 정몽주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
 1380년 우왕6년 생원시에 급제, 봉선고판관(奉先庫判官)
 1382년 우왕8년 문과급제, 중서문하성록사(中書門下省錄士)

- 1393년 태조2년 6월22일 기거주(起居注)
- 1405년 태종5년 5월27일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 1407년 태종7년 4월22일 문과 중시(重試)을과 2등, 예문관직제학(藝文館直提學)
- 1409년 태종9년윤4월22일 수원부사(水原府使)
- 1411년 태종11년11월20일 예조우참의(禮曹右參議)
- 1411년 태종11년12월27일 충청·전라도 경차관(敬差官)
- 1412년 태종12년 1월12일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양령대군(讓寧大君) 교육
- 1412년 태종12년 8월 1일 상주판사(判尙州)
- 1413년 태종13년11월21일 예조참의(禮曹參議)
- 1414년 태종14년 8월18일 이조참의(吏曹參議)
- 1414년 태종14년12월 3일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 1415년 태종15년 2월 4일 충청도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
- 1416년 태종16년 7월11일 한성부윤(漢城府尹)
- 1417년 태종17년 3월22일 경상도도관찰사(都觀察使)
- 1417년 태종17년 7월15일 호조참판(戶曹參判)
- 1418년 태종18년 1월12일 형조참판(刑曹參判)
- 1418년 태종18년 6월 2일 함길도도관찰사(咸吉道都觀察使)
- 1418년 태종18년 6월 5일 호조참판 세자좌부빈객(戶曹參判 世子左副賓客) 충령대군(忠寧大君, 즉위 세종대왕)교육
- 1418년 세종즉위년8월11일 호조참판 동지경연사(戶曹參判 同知經筵事)
- 1418년 세종즉위년10월12일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대학연의(大學衍義) 정심설(正心說)강론(講論)
- 1418년 세종즉위년10월18일 호조참판 하정부사(戶曹參判 賀正副使)
- 1418년 세종즉위년12월7일 이조참판(吏曹參判)
- 1419년 세종1년 2월 8일 호조참판 동지경연사(吏曹參判 同知經筵事)
- 1419년 세종1년 9월25일 평안도도관찰사(平安道都觀察使)
- 1420년 세종2년10월17일 호조판서(戶曹判書)
- 1421년 세종3년 7월 4일 예조판서(禮曹判書)
- 1422년 세종4년 9월25일 호조판서(戶曹判書)
- 1423년 세종5년12월11일 호조판서(戶曹判書)중임(重任)
- 1424년 세종6년 6월20일 의정부 참찬 겸대사헌(議政府參贊 兼大司憲)
- 1424년 세종6년12월 4일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 1425년 세종7년 7월 5일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
- 1425년 세종7년윤7월7일 병으로 사직(辭職)하자 세종대왕이 약을 내림
- 1427년 세종9년 8월12일 향연62세로 전도총제(前都摠制)별세
- 1427년 세종9년 9월25일 졸(卒)한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에게 사제(賜祭)하고 교서(敎書)를 내림. 시호(諡號)는 문숙(文肅)



<세종실록> 세종9년 9월25일

- 문숙공파 증희 도유사 병조 -



바르게 고칩니다.
 <제 321호>

- 4면 좌측 상 22행 : 부조건(不桃典) → 부조건(不桃典) / 상 26행 : 흥박(供薄) → 흥박(洪薄)
- 5면 좌측 하 21행 : 도전(桃戰) → 도전(桃戰) / 중앙 하 7행 : 견중(犬衆) → 대중(大衆)
- 5행 : 氣운 → 기운 / 2행 : 공적(功績) → 공적(功績)
- 우측 상 12행 : 長은 → 장은 / 15행 : 흥박(供薄) → 흥박(洪薄)

광릉부원군파 총회 소식

■ 자문위원 회의 개최

광릉부원군파 총회에서는 3월16일(목) 명일동 총회사무실에서 종선 도유사를 비롯한 원로자문위원 6분(병준, 정래, 용진, 용훈, 현재, 득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멀리 제주도에서 현재(賢載 : 前 총회공종회 도유사) 자문위원께서 참석하여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하였다. 종선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자문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말하고, 특히 멀리 제주도에서 참석하신 賢載 자문위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거듭 인사말 하였다.

이날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2016년도 업무실적과 2017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설명한 후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구하고 앞으로 총회의 발전을 논의하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다.

■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광릉부원군파 총회(도유사 종선)에서는 3월21일(

화)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명 중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종선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엊그제 대의원 여러분들을 뵈는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갔다.”고 말하고, 2016년도에는 총회의 숙원사업이었던 파보가 완결되어 무엇보다도 기쁘다며 모두 대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함을 전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 종원 단합대회 등 큰 행사가 많이 있다며 대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文洙 총무의 경과보고, 長來 監事의 監査결과보고, 承載 재무유사의 2016년도 결산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을 얻었다. 그리고 기타 현안 사항 등을 討議한 후 이날 대의원정기총회를 종료하였다.



■ 광릉부원군파 총회 집행부 “구암정” 방문

광릉부원군파 총회(도유사 종선) 집행부와 종길 화수회장은 지난 3월17일 인근 암사동 한강변에 위치한 “구암정”을 방문하여 주변을 돌아보고 떨어진 담배꽂초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고 돌아왔다. 안타까운 것은 구암정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흉물스럽게 변모하였으며,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본 구암서원 유허지는 둔촌 선생의 유허비(遁村李先生諱集痘舊基 - 둔촌선생의 제기를 모셔둔 옛터라는 뜻)와 광릉부원군의 행적 및 一門六喪을 당하신 장례원 판결사 휘 時茂公에 대한 案內板, 바위절터라고 새긴 바위들, 그리고 구암정 이 건립되어 있다. 구암정은 대중회 前 文化有司(창순)님께서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문화재로 인정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노력으로 그나마 서울시에서 현 “구암정”을 건립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다.

- 광릉부원군파 총무유사 문수記 -

문경공파 총회 2017년도 대의원 총회 개최

2017년 3월 30일 문경공파 총회 사무실에서는, 대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으로

- 선조유덕을 받들어 종원 간 돈목과 화합,
- 선영수호와 시사봉향,
- 종중재산의 관리보존과 부대사업,

- 선대업적 편찬 간행 사업,
- 후손의 효 사상 고취와 인재양성에 목적을 두고 예산(안)을 통과 시켰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경공 유고집을 발간하여, 9월9일(음) 세일사 봉향일에 배부기로 하였으며, 전국청장년연합대회에 많은 종원들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경공파 총회 총무유사 주병 -



2017 문경공파 총회 정기총회

광천부원군파 총회 소식

■ 2017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의 개최

광천부원군 총회(도유사 성호)는 2017년 2월 23일(목) 총회 회의실에서 4분의 고문과 5분의 자문위원을 모시고 2017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2016년도의 결산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보고되었는데, 참석 위원들은 보고내역을 검토한 후 집행부 상임유사들의 노력으로 종재가 많이 절감되고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사업을 했다고 격려하였으며, 2017년에도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총회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우리총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사업계획에 대한 견해 등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 2017년도 광천부원군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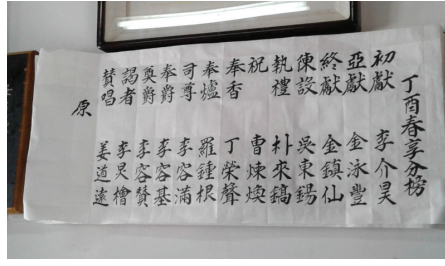
광천부원군파(도유사 성호)는 지난 3월9일(목)10시30분 천호동 드라마스 회의실에서 2017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경향 각지에서 참석한 총회 고문을 비롯한 임원·대의원 등 총40여명이 참석하여 총회가 개최되었다. 식순에 의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성호 도유사

(의장)는 올해가 광천부원군파 총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총회를 되돌아보는 해를 갖자고 말하고, 앞으로 종친간의 화합과 총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어 종식 前 도유사의 대중회 도유사로 임후보 건과 중화동 광천빌딩 리모델링 공사 보류건 등 중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모두 합심하여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자고 다짐하였다.

이어서 종성 부도유사의 경과보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끝으로 참석종인 모두가 더욱 발전하는 총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한 후 고문, 자문위원, 임원, 대의원이 한자리에 같이 하여 그동안 서로의 안부와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뷔페 식사로 화합과 돈목의 시간을 가졌다.

- 종두 총무記 -

쌀쌀한 봄 향기 속에 보춘서원 춘향제 봉행



과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나누었다. 관찰사공종회 종섭 도유사, 참판공파종회 재석 도유사, 좌통례공파종회 선래 도유

계소에 들러 준비해준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고 무사히 서울에 도착하여 귀가하였다.

이날 외빈으로 참석해주신 성균관 석전교육원 이성원(한산이씨) 교수께서 본 문중과 한산이씨와의 역사적인 교분관계 등 덕담으로 상호 교류의 장이 되었다.

쌀쌀한 봄바람 속에도 진한 향을 머금은 매화·동백은 자태를 뽐내고, 호남유림 효향 또한 질게 묻어나는 때, 지난 3월21일 참판공종회(도유사 재석)에서는 전남 영광의 보춘서원 춘향제를 봉행 참례하였다. 보춘서원에는 참판공(휘 극기)을 주벽으로 하고 영광의 입향조 음애공(휘 은), 이화정공(휘 안례), 오휴당공(휘 툐) 네분의 선조께서 배향되어 있으시며, 영광 유림에서 주관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를 모셔오고 있다. 올해도 아침 7시에 집결한 종인들은 서울을 출발, 11시경 보춘서원에 도착하여 현지 종인들

사, 대종회 종철 장재유사, 각 지파종회 종인 및 지역유림 등 각지에서 참석한 내·외빈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11시30분부터 시작된 제례의 봉행은 유림에서 정한 정유춘향분방의 절차에 따라 초헌 이개호, 아헌 이영풍, 종헌 김진선, 집례 박래호, 축관으로 조련환 등 유림께서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봉행되었다. 향사를 마치고 음복을 겸한 점심 식사는 남도의 맛을 삼합과 함께 풍성한 차림으로 일가 간의 화목과 돈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귀경길에는 서해안시대의 전초기지가 될 세계적인 새만금방조제 후

- 참판공종회 총무 용권記 -



광원군파 양진재공 종회 대의원 정기총회

- 새 도유사에 용환 전 총무유사 선임 -



광주이씨 보성집성촌 양진재공종회(도유사 용춘)에서는 지난 3월25일 (토) 양진재공종회 제실 "영모재"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상인원 총48명 중 3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된 가운데 용춘 도유

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조님의 위업과 종친간의 화목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2016년 결산내역과 2017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받았다.

이어서 2017년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선출 건이 상정 되었는데, 임원선출에 앞서 먼저 도유사 선출관련 규약을 개정하자고 참의공종회 장래 대의원이 제안하여 앞으로 도유사 임기

는 3년 단임제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도유사선출은 3파(종파, 사과공파, 참의공파)순으로 선출하되 해당 종파에서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종파로 순서를 바꾸어 선출토록 하여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하였다.

이어서 도유사 선출문제는 임원회의서 추천한 용환 총무유사를 새 도유사로 선출하고 감사에는 사과공종회 태용 종원과 용도 종원이 선임되었으며, 총무유사와 재무유사는 추후 책임자를 선임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양진재공종회에서는 금일 대의원정기총회에 앞서 지난 3월23일 임원회의를 열고 차기 집행부 도유사 추천 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용춘 도유사는 용환 총무유사를 추천하였고, 병순 자문위원께서 금채 현종을 추천함에 따라 참석한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의논한 결과 오랫동안 종사 일을 맡아 많은 경험과 지금

까지 종사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원만히 처리하여 용환 총무유사를 적임자로 정하고 만장일치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하기로 한바 있다. 용환 양진재공 신임 도유사는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대종회로부터 효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양진재공 종회 -



청장년연합회 1/4분기 대의원총회 개최



광주이씨 청장년연합회(회장 종위)는 지난 3월

19일(일요일) 오전11시 대전 "효문화마을" 소강당에서 2017년도 1/4분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원재·영균·금채 자문위원을 비롯한 총34명(서울3명, 경기서부5명, 경기남부5명, 인천4명, 충주4명, 고창4명, 전주1명, 광주전남2명, 보성3명, 경남3명)이다.

회장 인사와 자문위원 격려사에 이어 각 지역 청장년회의의 활동상황 설명 및 인사를 마치고, 안

건 심의에 들어가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제3호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공청회"의 건은 "제도개선"의 건으로 의안을 변경한 후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7명(종위, 근환, 승기, 승재, 종원, 영희, 곤수)을 위원으로 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3/4분기까지 각종 제도를 검토,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모두 마쳤다.

- 전국 청장년연합회 총무 기수記 -

구암정(구암서원 옛터)에 대한 소고



구암서원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산1-1번지 소재에 있다. 이곳은 옛날 지명이 바위절 또는 비량으로 불리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岩寺洞이란 바위암 절寺 字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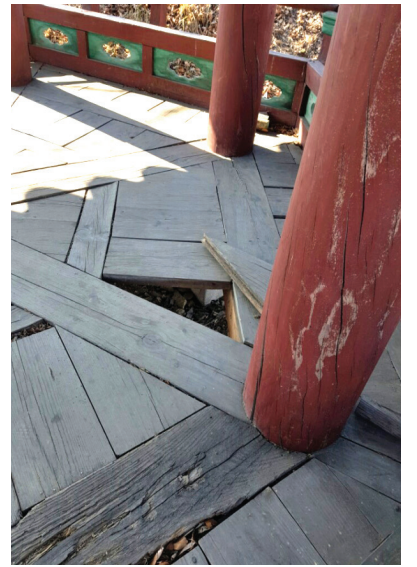
분명, 바위에 절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량(比量)이라 불리던 지명은 불교의 三量(現量, 比量, 非量)으로 절이 있었음을 증명하며, 백제시대의 불교 백중사가 있었던 자리라고만 알려져 있다. 이후 구암서원은 1667년(현종8) 절터였던 자리에 서원을 건립하여 이 지역(九川面 現在 강동구) 유생들에게 학식과 교양을 쌓게하여 과거에 응시함은 물론 관료로 입신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구암서원) 배출된 유생들은 둔촌 선생을 향사(享祀: 이름난 학자 충신 등 공적과 덕행이 있는 분을 추모하기 위하여 집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말함) 하였고 숙종 때 구암서원이라는 사액(임금이 손수 서원에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내림)을 받았으며, 둔촌 선생 외 석탄공(이양중) 임숙영 정선근 정엽 오윤겸 등을 배향(신주를 모신것을 이르는 말)되었던 곳이다. 한편 구암서원은 1871년 고종 때 전국의 서원 철폐와 함께 사라지고, 1898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유허비만 세워져

있다. 구암서원은 바위절터에 조성됐던 곳으로 보이며, 오늘날 구암정을 건립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다. 구암서원은 내용에서 보듯 둔촌 선생 외 다섯 분이 배향됐던 곳으로, 한강 개발과 함께 대중회 前 문화유사(창순)님께서 문화재로 등재 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용역을 맡은 모 대학교수가 이를 무시하고 서원이 아닌 절터로 각인하여 결국 오늘에 사적비만 서게 된 것이다.

비록 문화재로의 지정은 유보(후일 재 발굴용역) 되었으나, 서울시에서 구암정을 건립하여 이를 기념하고 있다. 구암서원 내에는 구암정을 비롯하여 둔촌 선생 유허비(비문: 滬村李先生諱集組豆舊基 -둔촌선생의 제기를 모셔둔 옛터라는 뜻)와 바위절터라고 새긴 바위석, 주춧돌,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세워놓은 안내판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구암정 바로 아래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서, 구암정을 들렀다가는 사람이 많으며 둔촌 선생의

업적을 홍보하는 데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구암정(정자)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낡아서 바닥이 회손이 되고, 정자에 도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신경을 안 쓰니 하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관리주체가 어디이든 간에 본 구암정이 시급히 보수되어 지금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고 언젠가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역사적인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대중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줌이 어떨까 생각한다.

- 광릉부원군과 총무유사 문수 -



청·장년회 육성기금 조성현황

■ 2017년 3월 28일까지 총회별 입금해주신 내역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도유사	상임유사	임원	대의원	소총회 및 일반총원	계
총 책정액	26,500	4,900	800	2,600	2,880	500	38,180
대 총 회	20,000	1,000	800				21,800
지 파 총 회	사인공	500	300	100	30	30	960
	광릉부원군	500	300	300	400	300	1,800
	문경공	500	300	300	30	100	1,230
	광천부원군	500	300	200	60		1,060
	광원군	500	300	200	270	150	1,420
	좌의정공	500	300				800
	참판공	500	300	200	150		1,150
	좌통례공	500	300	200	390	50	1,540
	문숙공	500	300	200	30		1,030
	목사공	500	300	100	30		930
기 타						10	10
합 계	25,000	4,000	800	2,000	1,390	640	33,830
달성율(%)	94.3	81.6	100	76.9	48.3	1208.0	88.6

※ 1. 본 현황표는 2016년 11월 22일 “청·장년회 활성화 및 육성책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광이회보에 매월 게재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1차(2016년)년도 목표 및 달성액입니다.

(청·장년회 활성화 및 육성책관리위원회 제공)

이달의

행 사 계 획

1. 재경화수회

- 일시 : 2017년 4월 17일(월) 오후 6시
- 장소 : 대중회 지하회의실

2. 광문회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후 6시
- 장소 : 퍼시픽 호텔 2층(남산홀)

3. 재경화수회 산악회

- 일시 : 2017년 4월 23일(일) 오전 7시
- 장소 : 설악산 “비룡폭포”
- 모임 : 지하철 왕십리역 10번출구 무학여고 방향 50m 지점
- 회비 : 20,000원

“자랑스런 종인”

종인(鍾仁) 현종 “옥조근정훈장” 수상

목사공파 종회 22대손 종인(50세)현종이 지난 3월7일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종인(鍾仁)현종은 1997년 구리소방서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그동안 터득한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남다른 노력으로 국가기술자격에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항목을 최초로 창출(2012년부터)하고 관련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였으며, 화재현장에서는 철저한 감식과 조사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구제에 힘써 온 결과 영예의 자랑스러운 공무

원에 선정된 것이다.

또한 종인현종은 현재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화재감식평가기사 출제위원, 화재조사장비개발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부천소방서 화재조사관(지방소방위)으로 근무 중이다.

世系

지유(목사공)-종원-극량-근-충흡-주근-작-춘학-남-계신-지홍-시욱-인서-언담-윤억-형희-병두-좌래-용원-명재-종인(鍾仁)



2017년도 재경화수회 산악회 시산제 성료



광주이씨 재경화수회 산악회(회장 재석)는 지난 3월26일(일요일) 따사로운 날씨속에 둔촌선조님의 유흔이 깃들어 있는 강동구 둔촌동 소재

사의 진행으로, 참석내빈 소개, 조상님에 대한 묵념(둔촌 정훈 낭독)을 시작으로 산악회장 인사, 명환 증희공 종회 도유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일자선 정상 “해맞이 공원”에서 산악회 회원을 포함한 80여명의 종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7년도 시산제를 병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석연 산악회 감

이어서 진행된 시산제는 석연 감사의 활기에 맞추어 초헌관에는 재석 산악회장, 아헌관에는 명환 증희공 종회 도유사, 종헌관에는 준희 문경공 종회 도유사께서 헌작하였으며, 축관에는 석재 대종회 문화유사, 집사에는 문재·승재 현종이 수고해 주었다.

제례를 마친 회원들은 단체사진을 촬영한 후 산을 내려와 인근 음식점에 마련된 식사와 음료를 나누며 오랜 시간 화합과 돈독의 시간을 갖고 참석한 종원 모두에게 기념타올과 떡을 나누어 주었다.

- 산악회 총무 성수記 -

[2017년도 시산제 찬조금 내역]

소속	종직	성명	금액	소속	종직	성명	금액
대종회	도유사	재진	500,000	광원군파	감사공종회장	석재	100,000
충희공 종회	도유사	명환	100,000		도정공종회장	용철	100,000
사인공파 종회	도유사	용균	100,000		전 산악회장	용위	100,000
광릉부원군파	종회		100,000			용선	100,000
	회수회장	종길	100,000		병승	100,000	
	부도유사	용돈	100,000	좌의정공파	도유사	명환	100,000
	광명종회장	종봉	100,000	참판공파	도유사	재석	100,000
문경공파	전 산악회장	범수	100,000	좌통례공파	도유사	선래	100,000
	대쌍령리종회장	복수	100,000	목사공파	도유사	남재	100,000
	암사동	종철	100,000	재경화수회	기우회장	광래	100,000
	도유사	준희	100,000		산악회장	재석	300,000
광천부원군파	부도유사	경래	100,000	산악회 총무	익수	100,000	
	동고종회장	종효	100,000	구암회회원일동		150,000	
	도유사	성호	100,000	서울청장년회장	점식	100,000	
	종회		200,000	인천청장년회장	근찬	100,000	
광원군파	도유사	옥재	100,000	차량봉사	용재, 승재, 종목		
	총무유사	걸재	100,000		합	계	4,250,000
	회수회 총무	점식	100,000				
	감사공종회		100,000				

4월 산행계획

- ▶ 일 시 : 2017년 4월23일(일)
- ▶ 장 소 : “설악산 비룡폭포”
- ▶ 모임장소 : 지하철 왕십리역 10번 출구
- ▶ 무학여고방면 50m 지점(버스 대기)
- ▶ 회 비 : 2만원(식사 등 제공)

연락처

- 산악회장 재석(010-5108-1988)
- 총무 성수(010-8687-1044)
- 등반대장 익수(010-6284-3469)

둔촌선생 명시선 30

謝陶隱諫議見訪

사 도 은 간 의 전 방

策蹇京華路眞僞

책 건 경 화 로 진 위

後浩然雖云明主棄猶得故

후 호 연 수 운 명 주 기 추 득 고

人憐旅舍舍盃醉直廬共被

인 련 여 사 함 배 취 직 러 공 피

眠無端交道熟不覺到忘年

면 무 단 교 도 숙 불 각 도 망 년

“도는 간의의 방문에 사례하다”

서울 거리에서 책건(策蹇)¹⁾도 하였으니 후의 호연(浩然)²⁾ 되었음이 틀림없도다. 비록 명주(明主)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오히려 고인(故人)들의 동정은 얻었네 여사(旅舍)에서 술잔 나누며 취해도 왔고 직려(直廬)³⁾에서 이불을 함께 덮고 잠도 잤었지 무단히 교도(交道)는 깊어져서 나도 몰래 망년(忘年)⁴⁾의 나이 되었네.

[註]

- 1) 책건(策蹇) : 질퍽거리는 말에 채찍을 가함. 즉 재능과 역량이 모자란 자신에게 채찍을 가한다는 말.
- 2) 호연(浩然) : 둔촌의 재(字). 당의 시인 맹호연(孟浩然)과 견주어 자칭 후호연(後浩然)이라 하였음. 맹호연은 양양(襄陽)에서 40년을 녹문산(鹿門山)에 숨었다가 나왔는데 특히 고시(古詩)에 능했고 풍류로 일컬어지고 있다. 시 가운데 책건은 맹호연의 패릉(霸陵)의 일을 인용했고, 다음 구의 명주(明主)도 맹호연 「불방명주업」의 뜻을 딴 것임.
- 3) 직려(直廬) : 지금의 숙직실(宿直室)을 말함.
- 4) 망년(忘年) : 망년지교(忘年之交) 나이 차이를 잊고 허물없이 서로 사귀

廣李 건강코너



이주일(李柱日)원장 - 한의학 박사 -

당귀(當歸) 이야기 [19]

우리가 한약(韓藥)을 복용할 때 한약 특유의 풍미(風味)를 내는 약재는 당귀(當歸)이며, 그 대표적 효능은 ‘우리 몸의 혈(血)을 보(補)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當歸의 학명(學名)은 *Angelica sinensis*이고, 고대(古代)부터 중국(中國) ‘감숙성(甘肅省) 산(産) 當歸가 품질(品質)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약(藥)으로 쓰는 當歸는 감숙성 산 *A. sinensis* 품종(品種)이 정품(正品)입니다.

그러나 감숙성은 지리적으로 오지(奧地)이고, 중국 대륙은 굉장히 넓습니다. 물류와 유통이 잘 발

달한 현대와는 달리 비교적 100여년 전만해도 감숙성, 사천성 산의 양질(良質)의 當歸를 중국 내 타 지역에 공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사(中國史) 분열기(分裂期)에 지역별로 다른 정권(政權)이 들어선 경우 타 지역에서는 아예 감숙성, 사천성 산 當歸를 구경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AD500년 경 도홍경(陶弘景)은 《신농본초경집주(神農本草經集註)》에 “歷陽所出, 色白而氣味薄, 不相似, 呼爲草當歸, 闕少時乃用之”라 하였습니다. 즉, “역양(歷陽-現 안휘성(安徽省) 화현(和縣))에서 나는 것은 색이 희고 기미(氣味)가 약하여, (당귀와) 같지 않아서 이를 ‘초당귀(草當歸)’라고 부르는데, (당귀가) 없거나 적을 때 사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草當歸’는 1082년 간행 된 《증류본초(證類本草)》에 “역양당귀(歷陽當歸)”라는 이름으로 기재(記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대륙의 동남쪽(후한(後漢) 13州의 양주(揚州) 지역, 現 안휘성 일대)에서는 우리말로 ‘바디나물(*Angelica decursiva*)’을 ‘역양당귀(歷陽當歸)’라고 하여 ‘當歸 대용품(代用品)’으로 사용한 기록이 고대로부터 엄연히 있었으며, 실제로도 지금 안휘성 일대에서는 이 바

디나물(*A. decursiva*)을 ‘토당귀(土當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한반도(韓半島)에 감숙성 산 *A. sinensis* 當歸가 유통이 안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사신(使臣)들이 선물(贈物)하는 아주 소량(少量)만을 가져다 나라님이나 드셨습니다.

한반도의 고인(古人)들은 어쩔 수 없이 *Angelica gigas*를 ‘참당귀’라 하여 고려시대(高麗時代)부터 當歸로 썼고, 조선(朝鮮) 세종(世宗) 대(代)에 이 ‘참당귀를 (조선의) 當歸로 정의(定義)하였습니다. 실제로 참당귀(*A. gigas*)는 역양당귀(바디나물, *A. decursiva*)와 외형(外形)과 꽃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참당귀의 인체를 보(補)하는 유효성분은 감숙성 산 *A. sinensis* 當歸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선조(先祖)들께서 사셨던 세월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 주의 : 반드시 한의사(韓醫師) 진단(診斷) 후(後) 사용하고, 증상 완화 시 바로 투약을 중지해야 합니다.

문의 : 李家삼대한의원 (031) 742-1075

이달의 明心寶鑑

濂溪先生曰 (염계선생왈)

巧者言拙者默 (교자언졸자묵)

巧者勞拙者逸 (교자로졸자일)

巧者賊拙者德 (교자적졸자덕)

巧者凶拙者吉 (교자흉졸자길)

嗚呼, 天下拙刑政徹 (오호, 천하졸형정철)

上安下順 (상안하순)

風清弊絕 (풍청폐절)

[해설]

염계선생이 말하기를

간교한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없으며, 간교한 사람은 수고롭고 어리석은 사람은 편안하며, 간교한 사람은 남을 해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덕이 있으며, 간교한 사람은 흥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같하니, 아, 천하가 모두 어리석으면 형벌의 정치가 없어져 웃사람은 편안하고 아랫사람은 순종하며, 풍속은 맑아지고 폐단은 끊어질 것이다.

- 성심편 해(省心篇 下) 中에서 -

사진으로 보는 이달의 '소식'



↑ 대중회 자문위원회의



↑ 2017년 대중회 대의원정기총회



↑ 재경화수회 산악회 시산제



↑ 청장년연합회 1/4분기 대의원총회



↑ 재경화수회 임원회의



↑ 2017년 재경화수회 정기총회

광주이씨회보 구독 및 찬조금 명단

금액이 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찬조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이름	금액(원)	비고
2월 구독 및 찬조			이종진	20,000	대구광역시 동구	이경재	20,000	서울시 중랑구
이종철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근춘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윤진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석주	50,000	부산광역시 중구	이병국	20,000	전라남도 구례군	이풍재	20,000	충청남도 부여군
이상규	20,000	경기도 성남시	이필영	20,000	서울시 강남구	이용민	20,000	경기도 여주시
이범수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종문	20,000	강원도 영월군	이종수	20,000	경기도 양주시
이종경	20,000	경상북도 경주시	이동재	20,000	경기도 구리시	이기석	20,000	경기도 안양시
이동래	50,000	경기도 고양시	이종태	20,000	경상북도 안동시	이광연	20,000	서울시 성북구
이성수	20,000	경기도 안성시	이용전	20,000	경기도 안양시	이영재	20,000	경기도 광명시
이준래	20,000	경기도 의정부시	이용대	20,000	대구광역시 중구	이병재	20,000	전라북도 남원시
이종진	20,000	서울시 광진구	이종성	20,000	충청남도 아산시	이영환	50,000	전라남도 보성군
3월 구독 및 찬조			이천희	50,000	경기도 광주시	이수익	20,000	대구광역시 북구
이덕규	2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이종원	20,000	충청북도 음성군	이동해	20,000	서울시 영등포구
이종봉	20,000	충청북도 청주시	이종엽	20,000	경기도 수원시	이수백	2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종구	50,000	서울시 송파구	이철재	20,000	경기도 남양주시	이석연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용정	2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성만화수회 11명 x 20,000 = 220,000			이종문	20,000	전라북도 완주군
이규재	20,000	경기도 동두천시	이정래	30,000	경기도 수원시	이석재	20,000	서울시 동작구
이관수	20,000	전라남도 장성군	이종길	20,000	서울시 서초구	이용각	20,000	서울시 성동구
이광래	20,000	광주광역시 남구	이완재	20,000	전라북도 순창군	이용정	20,000	서울시 성북구
이종욱	20,000	충청북도 청주시	이필수	20,000	서울시 구로구	이정구	20,000	경기도 용인시
이창재	20,000	전라북도 순창군	이풍래	20,000	광주광역시 북구	이종승	20,000	경기도 화성시
이근호	20,000	전라남도 영광군	이정환	20,000	경기도 광주시	이인교	20,000	서울시 종로구
천미공중회 30명 x 20,000 = 600,000			이한주	20,000	경기도 광명시			

구독료납부 안내

지금까지는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종원들께도 회보를 계속하여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부터는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께는 회보를 발송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으신 중원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독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년 구독료는 20,000원 입니다.

지료용지가 없으시면 **기업은행 계좌번호**

024-068156-01-019 이재진으로 송금하시거나

지료장표 번호 MICR 753300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송금하시거나 지료장표로 보내실 때에는 회보를 받아 보실

주소 및 성명을 명확하게 적어 보내주시거나

02)735-1720으로 연락주십시오.

광주이씨대중회 광주이씨회보 편집실

西紀 2017年 4月 1日

<제322호>

廣州李氏會報

發行人: 李宰鎭

編輯人: 李鍾鍊

主幹: 李碩載

發行處: 廣州李氏大宗會

www.gwanglee.or.kr

서울特別市 鐘路區 寬勳洞 197-9番地 廣陵빌딩 501號

Tel. 02)735-1720 · Fax. 02)735-1721

E-mail : gwangleedae@nate.com